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시	장소	총원	참석	불참
2024.08.19. (월) 11:00	서구의회 소회의실	6	5	1

○ 의정팀장

광주 서구의회 의정팀장 이성숙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여러 분야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및 적합성, 출장국가와 기관의 타당성과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2가지입니다. 임성화의원님 외 4분의 의원과 3명의 직원 총 8명이 일본으로 출발하는 공무국외출장건과 김형미의원님이 미국으로 출발하는 공무국외출장건입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병남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셔서 장춘옥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춘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의원 외 7명의 공무국외출장계획」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성화 의원님 외 7명의 일본 오사카와 도쿄

공무국외출장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추진 대표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성화의원님께서 출장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으로 2030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시 중에 우리 광주광역시만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없는 상황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소각장으로 불리던 자원회수시설은 다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에게 기피 혐오시설로 각인되어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친화적으로 설치된 일본의 선진 사례를 견학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본의 마이시마와 요코하마 소각장 견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가 노인 인구입니다. 이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불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노인 정책을 견학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사카와 도쿄를 방문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국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으로 오사카, 고베, 요코하마, 도쿄를 방문하고 출장 기간은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5박 6일입니다. 출장 인원은 총 8명으로 의원님들 5명, 관계 공무원 3명입니다.

저 9월 23일 일본에 도착한 1일 차에 고베의 행복마을이라는 뜻의 시와하세, 노무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행복마을은 고베시에서 1977년부터 20년 동안 계획하여 1989년에 개촌한 곳으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람들에게 필요한 훈련, 개어, 지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립이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 유무를 떠나서 누구든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나 재충전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어떠한 복지를 받고 장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이 어떠한지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올 예정입니다. 그다음 날 9월 24일 2일차 오전에는 atc 지리스 센터를 방문해서 고령친화 산업이 발달한 일본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견학하고 직접 체험을 해보고 올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혐오 시설을 예술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 서구 관내 치평동에도 소각장 부지를 광주 대표 도서관과 문화 공간으로 하기 위한 변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이시마 소각장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서 혐오시설의 인식 변화 과정에 대해서 견학하고 배우고 올 예정입니다.

9월 25일 3일 차에는 오사카의 부엌이라 불리는 구로몬 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구로몬 시장은 1902년에 개설된 재래시장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재래시장이 지금까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를 견학하고 우리 재래시장인 양동시장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접목해야 될 부분인지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볼 생각입니다. 9월 26일 4일 차에는 일본의 대표 지적인 환경 모델 도시인 요코하마의 소각시설 4개 중 추르미 소각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요코하마 추르미 소각장을 쓰레기를 소각해서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만들고 지역 및 노인복지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주민들과 상생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배우고 견학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27일 5일 차에는 우리나라 국회와는 달리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의 의회 정치를 제압하고자 일본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미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장춘옥

임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보환 위원

예 아니 이사 위원장님께서서는 워낙 꼼꼼하시고 이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셔서 질문 잘 다녀오십시오.

○ 조기안 위원

일본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 일본 스타일의 문화가 틀리니까 막상 가진다 해도 또 상당히 한계도 있더라고 그 기술을 제가 일본에서 신규수주라고 몇 번 해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좀 알고 오는 게 좋습니다.

○ 임성화 의원

이제 이 행복마을은 사실은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인데요. 사실은 우리 여기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위보환 위원장님께서도 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데요. 좀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행복마을에 대한 시사점들을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조기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환경과 또 광주의 환경이 사실 틀립니다. 그래서 통찰하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배우고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좀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관계자 미팅해서 잘 배우고 또 접목시키겠습니다.

○ 조기안 위원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소각장이라는 게 이제 여기 소각장 두 군데로 가잖아요 소각장이 도시에 인접 내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건지 소각장이 도시 시민들 이렇게 주거지 하고 이런 것도 좀 보시는 게 꽤 필요할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저는 이제 j패스 때문에 이쪽에 일본을 하는 회의를 갔는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1kg에 대한 열패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많아도 제한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1도 상승 피해 범위 1도시 상승 범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갈등 소지가 돼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지원 범위가 몇 km까지 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은 2km로 지금 정의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영광에 지금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거기도 지금 어떤 자연 마을이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 2km를 먹고 돌리다 보니까 4가구만 한 거고 나머지 가구도 포함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끌려왔던 한 10몇 년을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혜택을 계속 받고 이 사람은 혜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된다면 어느 반경은 몇 km 규정이 돼 있고 법이 있으니까 이제 법에 따르겠죠. 그랬을 때에 그런 행정구역이 행정동이 되겠죠. 이런 게 분리돼 나뉘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걸 꼼꼼히 좀 챙겨 보시는 게 나중에 어디다 유치했을 때에 불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다녀오시니까 일본 어디는 어떻더라라는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쉽게 좀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임성화 의원

일본의 이제 보상의 어떤 법적 지침이라든지 일본 주민들 거기 일본도 갈등이 있었을 건데요. 거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잘 배우고 추후에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춘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안 위원

여기 재래 시장은 굉장히 잘 돼 있나요? 어쨌든 우리 양동시장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장인지 어떤가요?

○ 연수담당 김희수

사전 자료 조사했을 때 거기가 한 120년 정도 유지된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거기가 필수 코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관광 명소처럼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양동시장 보편은 현지인들만 이용하시고 관광객들은 이용 안 하시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견학해보려고합니다.

○ 조기안 위원

어떤 접근성의 장점이 있는지가 아니면 주변의 인프라를 좀 보고 와야지 그렇지 않죠. 제가 시장을 몇 군데 가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구경만 다니고 오고 있는 이 왕왕 있어가지고 실제 좀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하는 계층 예를 들어서 이제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안 가버리잖아요. 인근 사람들만 이용을 하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실무자가 같이 가서 배우고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지 의원님들이 다 챙긴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교통의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이 그 좋은 건지 왜냐하면 이번도 65세 넘은 면허증 반납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일 대중교통이 중요해요

○ 하기주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아마 지금 소각장 연수 소각장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광주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문제 때문에 이제 각 구청으로 지금 이제 공을 떠넘긴 상태인데 사실은 소각장을 지하로 해서 지금 공원 시설을 만들고 예산도 한 1천억원 이상을 이제 받아들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님비 현상 때문에 진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반대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도 사실은 표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대놓고 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광주 5개 구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소를 잘 선정해서 그러면 그쪽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지상은 또 공원을 시켜서 이렇게 명소로 만든다고 하는데도 반대만 하는데 의원님들이 먼저 가서 그걸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서 우리 자치구로 예산이 한 1천억원 이상이 온다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갖고 다 그러는데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이 먼저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래서 또 가능하다면 이제 이런 장점들을 좀 이렇게 홍보하고 해서 이제 우리 구로도 유치를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여행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양동시장이 예산만 무지하게 투입만 할 뿐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재래시장들은 광장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양동시장은 그렇게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쪽에 광주를 구경을 하고 저 어디 청평 국밥집 가서 줄 서서 국밥 한 번 먹고 외지인들이 가지만 양동시장을 안 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시장은 구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다 연루하신 분들이 지금 좌판 깔고 아니면 시장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든 시장을 존속을 시키고 그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쪽에 외국의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시장들을 잘 좀 이렇게 보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양동시장에다 접목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유명한 음식 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먹거리들도 좀 이렇게 배치를 좀 잘해서 사실은 양동에 가면 먹거리 하나도 없잖아요. 가구 시장 그리고 옷 그다음에는 이제 생선 파는데 이제 이런 데는 사실은 이렇게 길도 막 지저분하고 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고 그다음에 빈 이제 상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좀 외국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와서 접목을 시켜내서 양육 시장이 활성화가 좀 되고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의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기안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 뭐 제주도의 중앙시장 거의 상당히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광 외국 관광객들 또 많이 오더라고 거기 끝 무렵에 어디 거기에 가니까 또 빵집이 유명해서 빵 막 주어서 사더라고 그리고 활성화되려면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야 되고 그런 골목 골목을 뭔가 특성화시켜서 젊은 층들이 와야지 이게 입소문도 빠르고 뭔가 소화가 되지 나이 먹는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저는 그래요. 양동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단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재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선 팔고 판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외에도 먹거리나 이렇게 지치면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뭔가 돼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시장 제주의 중앙시장을 좀 더 저기 다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니면서 좀 힘들면 가서 먹고 쉬고 했는데 시장 가서 점심 먹고 늦게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저녁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또 양극 시장도 똑같잖아요. 밥 먹을 때도 양동시장 양동 시장 가서 밥 먹는다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뭔가 먹거리를 이렇게 자꾸 제시해 주면서 그 양동시장에 새로운 양동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는 그것을 좀 연계시켜줘야지 광주는 양동시장을 밀어야지 거기다가 이제 특이한 먹거리 하나를 갖다가 꽃아 놓으면 이제 바로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의원님들이야 또 상의를 하고 또 가고 또 한데 실무자들이 그걸 밑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의원님들 갔다 온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가시면 실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그걸 좀 뭔가 조금만 보고서가 나와서 좀 이용하도록 해주세요.

○ 임성화 의원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단순히 시장을 그냥 라운딩하는 걸 떠나서 좀 관계자 구로 시장이 120년 됐는데 120년 동안 유지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자 미팅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은 확실하게 좀 배우고 접목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거리가 있어야 사실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양동시장에 비어 있는 점포가 있다면 구청에서 좀 매입을 해서 아주 유명한 일부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백종원이 이렇게 지금 컨설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서라도 좀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배우고 구청에 담당 소관과에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춘옥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증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의 미국 공무 국외출장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의 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께서 출장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 김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무 국외 연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국외 연수 계획 과정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주 청년 의원들은 국외 연수의 기존 방식 말고 배낭 메고 공부하는 국외 연수를 갈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직접 연수 콘셉트와 일정 기간 섭외까지 직접 해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새로운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싶다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공무 국외 연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을 함께 같이 기획한 사람은 국외 연수 일정 수립을 담당할 광주 서구의 김현미, 그리고 방문 기간 섭외를 담당할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부의장과 강수훈 의원, 그리고 연수 콘셉트를 기획한 광주 북구의 신정훈의원 전체적인 자료 수집하고 정리한 광주 광산구의 강한솔 의원, 이렇게 광주 청년 의원들이 이번 연수를 함께 합니다. 그럼 미국을 왜 선택하게 됐을까요? 서유럽, 동유럽, 아시아 지역까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지만 세계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세계 중심인 미국을 국외 연수 나라로 고려하게 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다양

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등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미국은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초선인 청년 정치인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전 세계인의 관심이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미국 도시 중 저희가 방문하게 되는 뉴욕은 랜드마크가 많은 도시입니다. 광주가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해 타 지역에서 방문하지 않는 로저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많은 랜드마크를 방문해 광주가 우호적인 도시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정책을 제안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에서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을 국외 연수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대략적인 연수 개요입니다. 연수 기간은 2024년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총 7박 10일입니다. 연수 장소는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 그리고 연수 부원은 서구에서 김현미 오늘 심사받는 저 한명입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첫 번째 주요 기관 방문 및 문화 탐방을 통한 성공 사례 발굴입니다. 뉴욕 에라 민간 창업보육기관 뉴욕 코넬테크 방문을 통해 창업 지원 사례를 그리고 센트럴 파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방문을 통한 도시 랜드마크 조성 사례, 선형 공원인 하이라인 파크 방문을 통해 지역 개발과 도시재생 사례, 국립 911 테러 메모리얼을 통한 추모 공간 조성 사례, 전문 예술극장인 민스코프 공연 관람을 통해 전문 공연장 조성 사례 등을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뉴욕 최초 한인 하원 의원인 농김과 면담을 통해 미국 선거 제도와 지방의원 활동 사례를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초선의 감독인 전우석과 면담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의 역할과 활동 사례 그리고 미 국무부 외교대학원 아시아 지역 회장님 아피차이 슈퍼와 면담을 통해 아시아 전체와 한국 전체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런 성공 사례들을 발굴해서 좋은 정책으로 연계하고 싶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19일에는 그리니치 빌리지라고 예술가의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를 책 GTP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ZGPP에 질문해서 어떤 공간이 좋아 어떤 데가 재미있어 어떤 음식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보고 그 그 방향대로 저희가 기획하게 됐고요.

20일은 뉴욕 CU의 뉴욕 하원 원인 논김 그리고 영화 감독 저우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21일 토요일은 모마 미술관 하이라인 파크, 국립 911 테러 메모리 방문관 그리고 전문 예술극장 뉴스코프에서 라디오킹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일 월요일 뉴욕 코넬테크와 뉴욕 에라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세트럴 파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일 워싱턴으로 넘어가서 국회의사당과 스위스 소니언 박물관을 방문하고요. 25일 수요일 날은 미 국무부 외교대학원 아시아 지역 회장인 아피차이 슈퍼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연수를 통해서 저희 연수 효과를 제가 썼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좀 광주시의회랑 서구회랑 북구의회랑 광산구의회 이렇게 4개의 의회가 한꺼번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의회 저희 서구에 맞는 접목하는 저희가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광주 중앙공원 조성 이후 활용 방안 마련 센트럴 파크와 하이라인 파크 방문을 통해 광주 중심부의 대규모 지금 조성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 중인 중앙공원에 조성 이후의 활용 방안을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청년센터 활용 방안 마련인데요. 뉴욕 창업지원센터인 에라를 방문해 스타트업 선발 및 지원 과

정 등 전반적인 정책 과정을 수렴해 서구 관내에 지금 추진 중인 서구 스타트업 센터와 청년센터 플러스 활용 정책에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전문 예술극장 필요성과 조성 방안 제안인데요. 전문 예술극장인 민스코프 극장을 방문해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 예술 극장의 필요성과 조성 방안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춘옥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보환 위원

그냥 이렇게 서로 함께 서로 따로 콘셉트인가요?

○ 김형미 의원

서로 함께는 같이 가고요. 결과 보고서도 저희가 기존의 결과 보고서보다는 좀 다른 방식과 다른 형식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과 보고서도 같이 나올 겁니다. 다 같이 다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서구에 맞는 이런 정책들을 좀 제안하고 다른 구도 각 구에 맞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게 어쨌든 광주 전체가 다 같이 잘 사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 위보환 위원

구성 자체가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고 지금 들어가져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기획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 김형미 의원

감사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요. 쉬지 않고 열심히 연수 기간 동안 하겠습니다.

○ 조기안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실 것처럼 적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워싱턴 가는 것도 왔다 갔다 시간 엄청 소비해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준비를 안 해보면 길에서 쏟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미국을 제가 한 대여섯 번 가봤는데 이런 여러가지 쪽으로 근데 제일 궁금한 것이 현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기서 일정을 체크하지 않으면은 몸 놓고 가가지고 한 다리만 한 10일 보고 왔어요. 저는 덕분에 구경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공원을 개발 전략을 가지고 이쪽에서 벤치마킹 한다면은 뉴욕에서도 예를 들어 변화가 중심으로 좀 그쪽에 상당히 공간이 넓잖아요. 그런 쪽에 좀 더 깊이 있게 봐주는 게 좋지 않겠냐 뜻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 것처럼 미국은 큰나라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에는 또 우리나라 중앙공원은 조그마해요. 그걸 그대로 접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을 명확히 좀 보고 오셔서 하고 이번 기회도 이렇게 잡혀 있으니깐 그런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은 본 역에 동에도 공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또 가까이하시면은 이번 동경에서 가까이 공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들어와서 막 해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한번 벤치마킹해도 좋지 않겠냐 싶은데 아무튼 중국은 미국은 제가 한 저쪽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저쪽 마이애미까지 쫓아다녀봤는데 그렇게 너무 큰 나라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원 관리하듯이 막 예쁘게 잘지게 이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땅덩어리에다가 수지를 쳐야 된다고 해서 우리 수지 재배한다고 해서 갔더니 어디죠? 거기 갔더니 뭐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우리 생활용수 나온 거 있잖아요. 그대로 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그게 처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갔을 때는 조금 더 적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가지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조금 아쉬운 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김형미 의원

해주신 말씀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을 5박 6일 가고요. 워싱턴 2박 3일 이렇게 딱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미국이 넓은 도시고 볼 곳도 많고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이번에는 뉴욕과 워싱턴 그래서 워싱턴에서 어쨌든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보고요. 뉴욕에서는 랜드마크는 어쨌든 세계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중앙공원도 사실은 베나트 내에만 해도 공원이 너무 많거든요 4개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볼 수 있게 저희가 마지막 날 이제 배터리 공원이라고 최근에 되게 조금 이슈가 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원까지 좀 보고 올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저희가 꼼꼼히 누수되는 시간 없게 잘 하고 오겠습니다.

○ 하기주 위원

저도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됐든 결과가 그 결과가 만족한 많은 결과가 설령 안 나오더라도 이제 이런 방식의 연수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꼭 서구의회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광주로는 이제 어떻게 됐든 한 덩어리기 때문에 북구든 광산구든 해서 이렇게 어떠한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김형미 의원

좀 결과도 좀 저희가 낼 수 있게 6명 의원들이 서로 계속 만나고 사실은 이 기획도 저희가 2023년 12월달에 단독방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기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든지 어쨌든 뭔가를 좀 제시할 수 있게 결과 보고서도 꼼꼼히 잘 쓰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기안 위원

그리고요. 저는 이제 그 담당 의원님들 두 분이냐 계시니까 이제 공무원들 저기들을 1년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우수 이런 선진 사례 아까 이제 외에 대학 얘기처럼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이런 것을 충분히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이 아이디어를 정책을 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밑에서 따라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

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위원회 우수 공무원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예 이제 그것도 꼭 100% 일 수도 있지만은 또는 의지가 있다면 50대 50% 50%는 자부담 50%는 지원해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4대 6이라든가 해서 100% 지원은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 지원해주면은 이거 그 가치가 적습니다. 오히려 자부담이 좀 돼야지 그걸 깊이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그 공무원들이 하는 조건은 자부담 40%를 대라 30%를 해라 그리고 여기서 구해서 몇 프로 되겠다 그러면 훨씬 더 갔다 와도 내용 있게 보고 깊이 있게 보지 돈 주면 가서 그냥 놓고 시간 보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번 그래서 좀 젊은 우리 공무원들 좀 저기 아이디어가 팍팍 솟아 오르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김형미 의원

현재 서구가 다른 구보다 훨씬 지금 직원들 구대 연수를 보내고 있고요.

자부담 얘기도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20% 30% 이렇게 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춘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과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장춘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환 의원의 7명의 공무원 국외 출장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2024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현미 의원의 공무원 국외 출장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전원

예

○ 부위원장 장춘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광주 서구의회 공무원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